



[금융] 신한금융 신디지털금융 가속화 7개사 CEO 머리 맞댄다 05



Life

[라이프] 희귀템 혹은 초저가 대형마트의 생존전략 1



불법사금융 점검 강화... 과대광고 단속... 서울시,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 근절' 팔 걷었다

민생침해 예방·단속 등 대책 추진 상품권 수수료·SNS 쇼핑사기 등 관련 업체 실태조사·현장 점검 실시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 온라인 쇼핑물 사기와 같은 민생침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 실질적 피해 구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 사업비로 총 5억 2100만원을 투입한다.

민생침해 10대 분야는 ▲대부업(채무조정상담, 불법사금융) ▲다단계·특수판매 ▲수·위탁거래 불공정 ▲전자상거래 ▲상조업 등 할부거래 ▲프랜차이즈 불공정 ▲취업사기 ▲상가임대차 분쟁 ▲전자금융사기 ▲공산품 안



전관리다.

시는 지난해 대부업·다단계·상조업·취업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관련 업체 3772개소를 단속해 1266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눈물그만상담센터에서는 시정·배상·합의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분야별 상담 건수는 상가임대차 관련 1만7097건, 대부업 관련 506건, 프랜

차이즈 관련 208건이었다.

우선 시는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13년 39%에서 2018년 24%로 15%포인트 하향 조정되고 대부중개수수료가 낮아지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법 위반 소지가 상존한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자치구 모니터링 결

과와 민원인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추진하는 한편 구청과 수시로 합동점검을 진행해 단속의 효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 중 화장품이나 건강 기능식품 구매를 유도하면서 질병,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작용을 명현 현상으로 홍보하는 곳에는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7~2019년 다단계 등 특수판매 관련 403건의 민원 상담을 통해 10억2200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아울러 시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가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2019년 3조3239억원으로 약 2.77배 증가했지만 상품권 발행자와 입점업체간 수수료 관련 규정이 없어 분쟁 소지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

맹본부와 가맹점간 수수료 균등 부담을 지도·권고할 방침이다.

또 시는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 소비열풍으로 SNS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는 피해 다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키로 했다. 시가 전자상거래 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모바일 쇼핑 피해 비중은 2016년 45.5%에서 작년 76.6%로 31.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SNS 이용 쇼핑 피해 비율은 8.4%에서 29.1%로 3.46배 늘었다.

시는 "변화하는 생활 양식에 맞춘 콘텐츠 제작·배포하고 사업자를 상대로 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해사이트를 단속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마켓컬리, 2000억 투자유치... 서울시 '지원사격'

서울시, 외국인 투자유치 도와 인베스트서울센터 맞춤형 지원

서울시는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가 지난달 초에 발표한 1.5억달러(20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도왔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기구인 '인베스트서울센터'는 마켓컬리의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등록 등의 법무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마켓컬리는 투자유치 금액의 대부분을 디에스티글로벌, 할하우스캐피탈, 세콰이어캐피탈차이나, 퓨즈벤처파트너스, 트랜스링크 캐피탈, 에스팩



스매니지먼트와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투자받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인베스트서울센터는 ▲ICT(정보통신기술)·바이오 분야 외국인 투자자 발굴 ▲외국인투자 신고 및 사업자등록 지원 ▲서울 기업 대상 투자유치 기회 창출 지원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 본사나 사업장이 있는 창업·

중소·벤처기업은 마켓컬리의 사례처럼 인베스트서울센터의 맞춤형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산업 박람회 참가, 잠재 외국인투자자와 비즈니스 미팅 등 센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중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켓컬리의 외국인투자유치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서울의 더욱 많은 창업·중소·벤처기업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기업 밀착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접수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울 평창동에 중소형 전기 시내버스 투입

평창동 좁은 골목 오가는 8003번 운행 짧은 배차간격으로 교통불편 해소

서울시는 중소형 전기버스를 투입해 종로구 평창동 일대를 오가는 8003번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좁은 골목길 형태의 경사로가 많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중소형 전기 시내버스 2대를 투입해 8003번을 운행하기로 했다. 짧은 배차간격(최소 13분)으로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킨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음·친환경 전기버스를 투입·운영함으로써 평창동 일대 경유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매연 문제 등 일상생활 불편 사항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평창동은 구간마을버스가 30분 단위로 운행돼 온 구간으로, 배차간격 단축을 목표로 서울시가 운수회사·종로구와

협의를 왔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운행 개시 이후 운수업체는 마을버스의 지속 운행 여부를 서울시·종로구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평창동·홍지동 일대 주민들의 도심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말 집회가 있을 때 사망대와 경복궁 사거리를 오가는 8002번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면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자하문터널 인근에서 회차하는 바람에 평창동·홍지동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말이나 도로통제시에만 운행하는 중소형버스 노선인 8002번을 신설하고, 평창동 주민들과 합의해 승객이 감소하는 주말에 8003번 차량 2대 중 1대를 분리해 8002번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은평-관악 잇는 '서부선 경전철' 2028년 개통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통과 새절역에서 서울대까지 22분

서울시는 은평구 새절역(지하철 6호선)과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구간을 도시철도로 잇는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총 길이 16.15km, 16개 정거장으로 건설되며, 1·2·6·7·9호선과 환승으로 연계되는 지선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1조6191억원이다.

시는 노선 개통 후 새절역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36분(1회 환승)에서 22분(직통)으로 줄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서울대입구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23분에서 7분으로, 서울대입구역에서 장승배기역까지는 22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사와 운영사 선정을 위한 제3차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오는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2028년에 개통토록 계획 중이다.

이 계획은 2000년 발표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처음 반영됐으며 '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어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17년 3월 두산건설이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민간 적격성 조사는 서울시가 의뢰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해 왔다.

/김현정 기자

